

추억의 포장마차, 신중양시장에 조성

전주시, 거리 개장식 열아... 매주 금·토 운영 다채로운 먹거리 저렴한 가격에 판매

전주남부시장 야시장이 대한민국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신중양시장에도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가 조성된다.

신중양시장 추억의 포자는 전주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아 남부시장 야시장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견인하는 쌍두마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와 전주신중양시장 상인회, 전주신중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은 14일 신중양시장 중앙무대에서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 개장식'을 가졌다.

신중양시장 중앙 통로에 설치되는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는 과거 신중양시장 인근에 밀집돼 직장인 등 시민들의 고충과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포장마차촌을 되살려 전통시장과 인근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포차 10대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장년들의 향수를 불러 일으킬 포장마차 먹거리부터, 젊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새우·스테이크 등 간편 먹거리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한편 전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 조성, 야시장 운영,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며 대한민국 전통시장 활성화 대표모델로 손꼽혀왔다.

대표적으로, 전주남부시장은 중소 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실시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3년 연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국가대표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전주시가 전주남부시장의 경쟁력을 살리고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장 내 빈 점포를 활

용한 청년몰을 조성해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난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야시장을 조성해 한옥마을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라 만들어 전통시장 활성화의 전국적인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남부시장에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신중양시장에도 청년창업지원인 '청춘밀방'을 개장했으며, 전주시 서부시장에도 올 연말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시장 내 유휴공간에 총 20개 청년점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주신중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관계자는 "시장 인근에 밀집돼 직장인과 시민들의 소통, 화합의 장소로 사랑을 받아왔던 포장마차촌을 다시 조성해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신중양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시장뿐만 아니라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포장마차를 찾아 추억을 만들고, 신중양시장의 포장마차 거리가 전북은 물론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장식에서는 전주신중양시장 상인동아리인 '싱인행복예술단'이 난타와 노래공연, 색소폰 공연 등 식전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10대의 포장마차 외에 지역 셀러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매대와 신중양시장 청년회가 직접 운영하는 추억의 뽑기 매대, 버스킹 공연, 전주리마다호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행사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신중양시장 블로그(blog.naver.com/pkicuto2)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71-8883)로 문의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전주 노송광장, '도심속 가족캠핑장' 변신

드론축구 · 버스킹 · 전통놀이 체험 등 이벤트 다채

전주시청 노송광장이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가족캠핑장으로 재탄생했다.

전주시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동안 시청 앞 노송광장을 전주시민들이 도심 속 캠핑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심 속 가족캠핑장으로 운영했다. 이날 노송광장에서는 사전에 선착순으로 참가를 희망한 30가족 120여명의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시청광장 등 도심 속으로 떠나는 캠핑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들을 자유롭게 즐겁게 풀이낸 캠핑문화 토크를 통해, 건강한 캠핑문화 조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이날 캠핑장에서는 전주시가 최첨단 탄소소재와 드론기술, ICT를 융복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개념 레저스포츠인 드론축구 시연을 시작으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스

킹 공연과 인형극, 독립영화 관람,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캠핑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가벼운 도시락이나 배달음식, 분부식에 비치된 정자레인지 등을 이용한 간편 요리를 해먹으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날 첫 가족캠핑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캠핑 참가자를 모집하고, 매주 토요일에 노송광장을 도심 속 가족캠핑장으로 무료개방할 계획이다.

김형조 전주시 총무과장은 "집에서 가깝고, 전주시청 광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 것 같다"며 "앞으로 시청 앞 광장을 주말에 자유롭게 캠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며, 주말뿐 아니라 언제든지 시민들이 모이고 휴식하고 소통하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중고차 판매대금 휴친 30대 검거

전북 순창경찰서는 14일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A(38)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경 전주에 위치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에게 차량을 매각해 준다고 속여 총 52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도망쳐 5년간 서울과 울산 등지에서 떠돌며 일용직 노동생활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지게차에 깔려 60대 사망

14일 오전 9시 11분경 전북 익산시 어양동 한 도로에서 A(64,여)씨가 B(30,남)씨의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건너던 A씨를 B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으므로 보고 B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시 민생정책, 국가적 아젠다 급부상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등 민생 현안 법제화

전주발 민생정책들이 국가적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원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이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14일 간부회의에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상한 인상에 대한 대응 역시도 힘이 실리고 있다"면서 "전주에서 시작한 게 국가적 아젠다가 되고 있는데,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각종 현안들을 풀라해 나가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전주시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들이 많다"며 "그렇다고 끌어안고만 있지 말고 전국적인 도시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대처해 나갔으면 한다"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시장의 이 같은 주문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을 주문하고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등 현실화에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사기를



FIFA U-20 월드컵 기여자 표창장 수여

김승수 시장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덕진예술회관에서 전주시청 2000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원 공감 한마당 행사'를 연 가운데, 전주의 첫인상을 비운 전주역 앞 첫미중길 영상 시청과 2017 FIFA U-20 월드컵 대회에 기여한 유공단체와 시민,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기도 열렸다.

복돋아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부영주택의 부당한 임대료 상한 인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전국 22개 시·군·구가

공동 대응을 나섰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사후 신고체계에서 사전 신고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재용 기자

6세이하 미취학아동 대상 '모여라 건강동산' 운영

전주시보건소는 14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 신체활동, 흡연예방, 음주예방 등에 대해 교육해 올바른 건강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모여라 건강동산'을 운영했다.

모여라 건강동산은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실습과 게임 등을 통해 어린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어린이들 체력 향상과 자신감 및 창의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식품안전거울을 이용한 식품모형 붙이기와 아침 결식 예방, 편식교정 교육 등의 영양교육과 함께,

술과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 건강체조 등이 진행됐다.

보건소는 매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모여라 건강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07개소 4,53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6세 이전에 형성된 건강습관은 평생 건강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모여라 건강동산 프로그램에 관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건강습관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청년공간 '비밀', 집단코칭 프로그램 실시

전주시는 매월 셋째주와 넷째 주 주요 일 청년소통공간 '비밀'에서 운영하는 청년집단코칭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먼저, 오는 20일 비밀 2호점인 커피머리안(덕진구 백제대로 652)에 스트레스에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코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7일에는 비밀 1호점인 우개팩토리(완산구 전주객사길 84, 2층)에서 사회초

년생인 청년을 위한 재무코칭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집단코칭 프로그램은 올 연말까지 지점별로 매월 셋째 주·넷째 주 목요일에 전주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금융·심리 전문가의 진행을 통해 청년이 본인의 취약점을 살펴보고 참여한 다른 청년과 함께 개선점을 분석하는 집단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